전국 사찰 설 합동차례…"부처님 공덕으로 가족 행복"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접수 인원 매년 늘어남에 따라
도선사, 하루 4차례 나눠 진행
조계사, 시주금 선원에 회향도
"부처님 전에 소망 기원 시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떡국을 나눠먹는 설날.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전국 사찰에서 진행되는 차례에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절 연휴를 휴가처럼 즐기려는 인구가 늘고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합동 차례에 관심을 보이는 시민들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사찰들은 설날인 1월 22일, 합동차례를 봉행한다.

서울 조계사는 1월 22일 오전 8시와 11시, 오후 1시 세차례에 걸쳐 여법한 예법에 따라 설 합동 다례재를 준비하고 있다. 다례재에 올라온 공양물과 시주금은 동안거 선원 대중공양금으로 사용되기에 더욱 뜻 깊다. 조계사 측은 "스님들이 정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신도들의 수희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02)768-8500

지난 1월 1일, 신정합동차례를 지낸 **봉은사**는 설 합동차례와 단독차례를 준비했다. 합동차례는 1월 22일 오전 8시와 10시, 오후 2시 법왕루에서 봉행된다. 단독차례는 같은 날 대웅전을 비롯해 지장전과 영각, 선불당, 미륵전, 보우당, 판전, 영상전 등에서 진행된다.

봉은사 측은 "불교식 제례로 선망부모를 위한 차례와 함께 조상들의 음덕을 기리고 새해 첫날에 온가족이 부처님 전에 모여 계묘년 한 해 소망을 기원하는 귀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02)3218-4804

삼각산 도선사는 1월 22일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계묘년 설날 합동 다례를 봉행한다. 접수 인원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오전 7시와 9시, 11시, 오후 1시 등 총 4차로 나눠 진행된다. 02)993-3161

제19교구본사 **화엄사**를 비롯한 전국 교구본사들 또한 1월 22일 합동차례를 준비하고 있다. 화엄사는 설 당일 오전 10시 각황전에서 설 차례 및 영구위패합동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061)782-0011

제7교구 덕숭총림 **수덕사**도 당일 새벽 5시와 오전 10시, 설날합동다례를 진행한다. 떡과 과일, 공양화, 공양금은 성심껏 받는다. 041)330-7700

제22교구 두륜산 **대흥사**도 1월 22일 설날 합동차례를 열고 신도들의 가정에 재난이 소멸하고 복락과 건강이 함께 하길 발원하는 시간을 갖는다. 061)534-5502

서울 불광사는 오전 10시 보광당에서 '계묘년 2023 설날합동차례'를 지낸다. 불광사 측은 "선망조상들을 위한 차례를 올리고 공덕을 기리고자 한다"면서 "새해 첫날 온가족이 부처님 전에 모여 계묘년 한 해 소망을 기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413-6060


조계사에서 진행된 합동 차례 모습.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사찰 차례는 번거로운 상차림을 피하면서 조상을 섬기는 예를 갖추고 특히 코로나 일상에서 명절 문화의 바람직한 대안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사찰 차례상은 일반 차례상과 다르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은 재가불자들이 부처님 정법에 맞는 불교식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지침서 '불교 상제례 안내'를 내놓았는데, 이에 따르면 불교식 차례는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 가르침에 따라 고기나 생선은 상에 올리지 않고 술 대신 차를 올린다.

육법공양물인 향·초·꽃·차·과실·밥을 올리며 기본 상차림으로 국과 3색 나물, 3색 과실을 갖출 것을 권장한다. 나물과 과실은 계절에 적합한 것을 올리고 형편에 따라 떡과 전·과자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집안 전통에 따라 융통성 있게 차려도 무방하다.

전국 사찰 일주문들 보물 지정

문화재청, 선암사·봉암사 등
일주문 4건 공고


순천 선암사 일주문


문경 봉암사 봉황문


대구 동화사 봉황문


구례 천은사 일주문

사찰 일주문은 사찰이 시작되는 영역을 표시하는 정문으로 기둥이 일렬로 배치된 독특한 형식의 문이다. 사찰 4곳에 일주문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순천 선암사 일주문' 등 8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재들은 사찰 일주문 4건, 사찰 문루와 불전, 누정건축, 승탑 등 각 1건이다. 사찰 일주문이 보물로 지정예고된 것은 문화재청이 지난해부터 전국 50여 사찰의 일주문을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4곳의 사찰 일주문을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로 지정된 사찰 일주문은 △순천 선암사 일주문 △문경 봉암사 봉황문 △대구 동화사 봉황문 △구례 천은사 일주문이다.

'순천 선암사 일주문'은 조계문(曹溪門)으로도 불리며 1540년 중창됐다. 선암사 일주문은 단칸 맞배지붕과 다포식 공포로 돼있으며, 기둥 구조는 기둥과 창방(기둥 상부에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가로 부재)으로 단순하게 구성됐다. 선암사 일주문의 초창 기록은 확인할 수 없으나 조선시대 기록을 통해 중창 이후 임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36) 때 유일하게 소실을 면한 건축물임을 알 수 있다.

'문경 봉암사 봉황문'은 1723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주문 앞쪽에는 '희양산봉암사(曦陽山鳳巖寺)'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뒤쪽에는 '봉황문(鳳凰門)'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봉암사 일주문은 단칸 맞배지붕과 다포식 공포로 돼있다.

'대구 동화사 봉황문'은 1633년(선조 11년)에 처음 건립됐고, 1965년에 현 위치로 이건하였다. 동화사 봉황문의 구조는 주기둥 상부에 비스듬히 부재를 덧댄 형태와 주기둥 옆에 2개의 보조기둥을 세운 형태가 혼합된 형식으로 매우 드문 사례이다.

'구례 천은사 일주문'은 1723년에 창건됐으며 앞쪽에는 원교 이광사(1705~1775)가 쓴 '지리산천은사(智異山泉隱寺)'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사찰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자 원교 이광사가 흐르는 물과 같은 글씨체(水體)로 이 편액을 써서 걸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통 일주문은 문지방이 목재로 되어 있는데, 석재로 된 문지방석이 주기둥 사이에 있는 사례는 천은사 일주문이 유일하다.

사찰 문루인 '고성 옥천사 자방루'도 보물로 지정됐다. 상량문 등 기록에 따르면 1664년에 법당 맞은편에 위치한 정문(正門)으로 처음 건립됐고, 1764년에 누각형태로 중창돼 '정루(正樓)' 또는 '채방루(採芳樓)'라 지칭했다.

이와 함께 '성남 봉국사 대광명전'과 신라 말기 승탑인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도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가치가 알려지지 않은 건조물 문화재를 적극 조사·발굴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민주당 문화특위·인도대사, 진우 스님 예방

1월 3일, 신년 맞아 예방 잇따라

새해를 맞아 사회 각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덕담을 나눴다.

진우 스님이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공식기구인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의 예방에서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먼저 "올해 정부 예산에 불교계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찰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을 언급하고 전통사찰 확대 적용으로의 바람도 전했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해 종단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받들어 국회 정각회와 함께 더욱 심기일전 해 올해 더욱 전통문화 발전에 힘쓰겠다"면서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일 많은 만큼, 종단에서 많은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같은날 진우 스님을 예방한 아밋 쿠마르 대사는 2월 9일부터 43일간 진행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사는 "불교 탄생지인 인도와 한국의 수교 50주년을 맞은 해에 진행되는 순례인만큼 원만회향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진우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향인 인도는 우리 불교의 고향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며 "수교 50주년을 넘어 실질적으로는 수교 2000년이 넘은 해"라고 웃으며 말했다.

임은호 기자



새해를 맞아 민주당 문화특위(왼쪽)와 주한 인도대사(오른쪽)가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齋(재) 의식의 변화 輦(연) 소형
종이연, 종이용선, 대체용
•태워서 환경오염시킴 없이 한 번 구입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연
•정교한 조각, 화려한 휘장 금단청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출원번호 30-2022-0052348
출원번호 030-0949904
가볍습니다 4kg
금단청연
적단청연
규격 W45cm x H65cm 가격 ₩150만원
위패나 사진을 올려 놓을 수 있도록 서랍식으로 제작됨
양손잡이가 부착되어 가볍게 들을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들고 배에 부착하여 편하게 받들 수 있습니다.
포교당 사용
대형 연
영단의 장엄

40여년의 외 길
사찰 모든행사에 필수적인 의식구
49재 천도재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등 각종 행사
번의 종류
•인로왕번
•아미타번
•삼신번
•오방번
•좌보처
•지장보살
•우보처
•항마진언
•보고번
•영가번
•구병시식
•산신번
•관세음
•용왕번
•시왕번
•칠여래번
•대세지번
•옴마니번
현장영상 • SBS NEWS
오늘(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이태원 참사 49일째 '추모 위령제'
공단자수 (번) 幡
한국불교전통의식구
주소: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 10길 8 풍산쉐르빌 105동 201호
☎010-8441-6814